



총대력과 더불어 빛나는 무장조직

조 선 혁 명 군 결 성 기 념 일 을 맞 으 며

오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신 8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가는 격동의 시기에 이날을 맞는 우리 천만민족은 총대로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 이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돌이켜 보고있다. 지금도 조용히 귀 기울이면 조선혁명군이 결성되던 력사의 그 날 백두산청년장군을 우러러 신념의 맹세를 다지던 열혈투사들의 목소리가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고 첫 무장대승악을 리던 원수격멸의 총성이 강성대국승리의 메아리로 세차게 울려오는데...

조 선 혁 명 군 결 성 기 념 일 을 맞 으 며

순으로 새형의 군대를 창건하여야 하며 무장투쟁만이 가장 철저하고 혁명적인 반일항쟁으로 필수 있다와 같이 하시었다. 그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카를피에서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준비를 위한 첫 사업으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었다. 조선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을 통하여 무장투쟁의 대중적기반을 축성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축적해가자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의도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조하신 회고하신것처럼 사실 그때 새 세대 혁명가들에게는 항일무장투쟁을 벌리는데 필요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 그렇다고 본보기로 삼을만 한 군사교범이나 경험이 있는것이 아니었다. 무장투쟁의 밑천이 있었다면 독립군과 화성의속살의 여러 동지들과 몇 자들의 권총이 있었을뿐이었다. 결국 백지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무기도 자기 손으로 획득하고 군사적경험도 스스로 축적하여야 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1년이나 2년이 지난 후에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창건할것을 예견하시면서다 조선혁명군과 같은 파도적인 정치 및 반군사조직을 내오신것이였다. 주체 19(1930)년 7월 6일, 고수수의 삼팔학교운동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조선혁명군결성이 진행되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이연설에서 조선혁명군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준비하기 위한 새 세대 조선혁명가들의 정치 및 반군사조직이라고 규정하시였으며 조선혁...

나 라 반 일민족해방투쟁을 조직적인 무장투쟁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 수 있게 되였으며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평도밑에 조국해방의 력사적의무를 총대로 실현하기 위한 과감한 투쟁에 용약 뛰어들게 되였다.

조선혁명군은 조직된 후 여러 소조로 편성되어 각지에 파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무장투쟁로선에 따라 김형현동지를 비롯 한 조선혁명군의 무장소조원들은 이른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디에는 조국해방의 심심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행군로를 피로게 개척한 조선혁명군 대원들의 업적을 참으로 기록하고 송고한것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들의 영웅적투쟁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그들이 흥신 사느라 피의 대가로 이 세상에 상비적인 혁명무장력으로 태어나게 되였다고 감동깊이 회고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시고 총대로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오신 성스러운 조선혁명군은 오늘 화제의 선군혁명가로서는 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힘있게 발전하고있다. 민족해방투쟁이후 총대를 더 높이 드시고 반제반미대결선을 전두에서 이끄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무적불침의 강국으로 솟구치게 한 위대한 원동력이었다. 언젠가 이 경여하는 장군님께서는...

나 라 반 일민족해방투쟁을 조직적인 무장투쟁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 수 있게 되였으며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평도밑에 조국해방의 력사적의무를 총대로 실현하기 위한 과감한 투쟁에 용약 뛰어들게 되였다.

조선혁명군은 조직된 후 여러 소조로 편성되어 각지에 파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무장투쟁로선에 따라 김형현동지를 비롯 한 조선혁명군의 무장소조원들은 이른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디에는 조국해방의 심심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행군로를 피로게 개척한 조선혁명군 대원들의 업적을 참으로 기록하고 송고한것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들의 영웅적투쟁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그들이 흥신 사느라 피의 대가로 이 세상에 상비적인 혁명무장력으로 태어나게 되였다고 감동깊이 회고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시고 총대로 백승의 력사를 수놓아오신 성스러운 조선혁명군은 오늘 화제의 선군혁명가로서는 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힘있게 발전하고있다. 민족해방투쟁이후 총대를 더 높이 드시고 반제반미대결선을 전두에서 이끄신 우리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무적불침의 강국으로 솟구치게 한 위대한 원동력이었다. 언젠가 이 경여하는 장군님께서는...

나 는 수령님의 뜻대로 인민군대를 틀어쥐고 선군정치를 하여 가장 어렵던 《그단의 행군》과 강행군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살상행동을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였다. 실천적투쟁경험은 우리의 선군정치야말로 가장 위력하고 가장 정당한 정치방식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내가 총대를 잠시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 나라는 끄떡 없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정명 선군은 우리 혁명의 피를기르고 민중의 보금이다. 보라, 우리 혁명무력의 강위력한 총대앞에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의 반공화국행동이 산산조각나고 인민군대의 혁명적정신은, 군인문화가 전사회에 보급되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혁명군대의 기질과 본래로 세계적인 혁명정신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조국의 장엄한 현실을!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내고 이룩하고 선군을 창조하는 길은 오직 선군에 있다.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자! 혁명의 총대를 더 강하게 버티자! 이것은 오늘 경여하는 장군님을 따라 선군혁명의 원천력을 뜻깊이 걸으며 강대국승리의 명마를 향하여 폭풍쳐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새겨진 억척불굴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회세의 선군혁명가로서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총대를 여격해 틀어쥐고 력사의 온갖 시련을 파고 헤쳐나가는 우리 천만민족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김 철 혁

어 버 이 수 령 님 의 위 인 적 풍 모 를 전 하 는 가슴뜨거운 이야기

어 버 이 수 령 님 의 위 인 적 풍 모 를 전 하 는 가슴뜨거운 이야기 와 관련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과업을 주시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어 버 이 수 령 님 께 서는 전 쟁 의 근 본 적 전 환 을 이 룩 하 기 위 한 여 러 중 요 회 의 들 을 지 도 하 시 는 라 그 처 럼 분 망 하 신 속 에 서 군 당 위 원 장 을 또 다 시 만 나 주 시 었 다. 그 동안 사 업 정 형 을 구 제 적 으 로 로 해 하 신 그 이 께 서는 전 쟁 의 어 러 운 시 연 을 견 뵈 고 있는 인 민 들 의 생 활 을 념 려 하 시 면 서 창 성 군 에 식 량 이 모 자 란 다 고, 그 래 서 지 신 께 서 수 송 대 를 보 내 어 식 량 을 실 어 주 는 과 업 을 주 었 으 니 어 서 더 아 가 서 쌀 을 받 을 준 비 를 하 라 고 말씀 하 시 었 다. 바 로 전 날 어 버 이 수 령 님 께 서는 한 인 민 군 지 휘 관 을 부 르 시 어 인 민 들 의 식 량 문 제 를 푸 는 것 은 전 두 못 지 않 게 중 요 한 문 제 라 고 하 시 면 서 자 격 들 의 부 르 시 임 을 받 은 군 당 위 원 장 이 그 곳 에 도 착 하 시 었 다. 그 를 반 감 께 맞 아 주 신 어 버 이 수 령 님 께 서는 지 금 군 대 인 민 들 의 생 활 이 어 떤 가 고 물 으 시 었 다. 수 송 대 가 창 성 땅 에 도착 하 지 않 으 나, 그 리 에 뽉 쳐 나 오 서 서 서로 부 동 처 곤 하 드 뜨 고 눈 물 을 흘 리 며 군 안 의 인 민 들 이 목 쟁 텃 터 치 는 《김 일 성 장 군 단 세 !》의 함 성 은 전 쟁 의 짐 은 구 톨 을 밀 어 내 버 겠 이 울 러 퍼 꾀 다. 창 성 땅 에 울 러 퍼 지 단 세 함 성 의 메 아 리, 그 것 은 인 민 에 대 한 사 람 을 친 쫓 으 로 지 니 신 어 버 이 수 령 님 께 서 대 한 우 리 인 민 들 의 다 양 함 은 흠 모 시 는 분 출 이 었 다. 분 사 기 자 활 명 회

포 화 속 을 헤 쳐 온 헤 처 온 식 량 수 송 대

어 버 이 수 령 님 께 서는 전 쟁 의 근 본 적 전 환 을 이 룩 하 기 위 한 여 러 중 요 회 의 들 을 지 도 하 시 는 라 그 처 럼 분 망 하 신 속 에 서 군 당 위 원 장 을 또 다 시 만 나 주 시 었 다. 그 동안 사 업 정 형 을 구 제 적 으 로 로 해 하 신 그 이 께 서는 전 쟁 의 어 러 운 시 연 을 견 뵈 고 있는 인 민 들 의 생 활 을 념 려 하 시 면 서 창 성 군 에 식 량 이 모 자 란 다 고, 그 래 서 지 신 께 서 수 송 대 를 보 내 어 식 량 을 실 어 주 는 과 업 을 주 었 으 니 어 서 더 아 가 서 쌀 을 받 을 준 비 를 하 라 고 말씀 하 시 었 다. 바 로 전 날 어 버 이 수 령 님 께 서는 한 인 민 군 지 휘 관 을 부 르 시 어 인 민 들 의 식 량 문 제 를 푸 는 것 은 전 두 못 지 않 게 중 요 한 문 제 라 고 하 시 면 서 자 격 들 의 부 르 시 임 을 받 은 군 당 위 원 장 이 그 곳 에 도 착 하 시 었 다. 그 를 반 감 께 맞 아 주 신 어 버 이 수 령 님 께 서는 지 금 군 대 인 민 들 의 생 활 이 어 떤 가 고 물 으 시 었 다. 수 송 대 가 창 성 땅 에 도착 하 지 않 으 나, 그 리 에 뽉 쳐 나 오 서 서 서로 부 동 처 곤 하 드 뜨 고 눈 물 을 흘 리 며 군 안 의 인 민 들 이 목 쟁 텃 터 치 는 《김 일 성 장 군 단 세 !》의 함 성 은 전 쟁 의 짐 은 구 톨 을 밀 어 내 버 겠 이 울 러 퍼 꾀 다. 창 성 땅 에 울 러 퍼 지 단 세 함 성 의 메 아 리, 그 것 은 인 민 에 대 한 사 람 을 친 쫓 으 로 지 니 신 어 버 이 수 령 님 께 서 대 한 우 리 인 민 들 의 다 양 함 은 흠 모 시 는 분 출 이 었 다. 분 사 기 자 활 명 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리 롭 웨 발 라 위 공 화 국 대 통 령 빙 구 와 무 라 리 카 각 하 나는 말라위독립 46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사회경제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 99(2010)년 7월 2일 평 양

모 로 니 꼬 모 르 런 방 대 통 령 아흐메드 아브달라흐 모하메드 샴비각하 나는 요르도독립 3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요르도르지방의 끊임없는 발전과 번영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 99(2010)년 7월 4일 평 양

까 라 가 스 베 니 스 엘 라 블 리 바 르 공 화 국 대 통 령 우 고 차 베 스 프 리 아 스 각 하 나는 베네수엘라독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반제자국적립장을 견지하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볼리바르혁명의 리념이 구현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 99(2010)년 7월 5일 평 양

선군의 위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여온 불멸의 령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다》를 발표하신 9돐이 되 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 90(2001)년 7월 5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총대로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에 기초하여 새 세기 사회주의위업수행을 위한 길을 뚜렷이 밝힌 강령적문헌이다. 로작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 중시, 군사정치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본질적 내용과 그 독창성, 선군혁명위업수행을 이끄는 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로작의 사상사론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반제반미대결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불어오르거나 야 할 전략적인 로선이며 정치방식입니다.》 사회주의위업은 혁명적당의 정치적행동으로 이룩되는데 수행된다. 당이 혁명과 건설을 행하도록하는데서 어떤 정치방식을 확립하고 실현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 한 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총대중시의 원리와 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오늘의 력사적조건에

맞는 가장 혁명적이고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라는것을 힘있게 론술하시었다. 선군정치는 혁명군대를 무적불침의 강군으로 만들어 조국을 보위하며 군대를 핵심,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하여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를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한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가슴속에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의 불꽃을 안겨주는 투쟁의 기치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무자비한 철퇴를 내리는 멸적의 무기로 되고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식 사회주의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도시에 승리의 력사를 아로새겨왔다. 경여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높이 우리 혁명당의 사상적일체화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시고 국방위주의 국가정치체제를 굳건히 다지시며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오늘 우리 조국이 혁명의 수뇌부와 일선단체, 사회주의 운명공동체를 이룬 불멸의 정치사상강국으로, 무적의 권력과 튼튼한 국가경제력을 가진 사회주의대국으로 굳건히 솟아 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전진할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와 인민이 반제반미대결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불어오르거나 야 할 전략적인 로선이며 정치방식입니다.》 사회주의위업은 혁명적당의 정치적행동으로 이룩되는데 수행된다. 당이 혁명과 건설을 행하도록하는데서 어떤 정치방식을 확립하고 실현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 한 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총대중시의 원리와 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오늘의 력사적조건에

맞는 가장 혁명적이고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이라는것을 힘있게 론술하시었다. 선군정치는 혁명군대를 무적불침의 강군으로 만들어 조국을 보위하며 군대를 핵심,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하여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를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한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가슴속에 사회주의에 대한 믿음의 불꽃을 안겨주는 투쟁의 기치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에 무자비한 철퇴를 내리는 멸적의 무기로 되고있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우리 식 사회주의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도시에 승리의 력사를 아로새겨왔다. 경여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높이 우리 혁명당의 사상적일체화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시고 국방위주의 국가정치체제를 굳건히 다지시며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오늘 우리 조국이 혁명의 수뇌부와 일선단체, 사회주의 운명공동체를 이룬 불멸의 정치사상강국으로, 무적의 권력과 튼튼한 국가경제력을 가진 사회주의대국으로 굳건히 솟아 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전진할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와 인민이 반제반미대결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선군혁명로선,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불어오르거나 야 할 전략적인 로선이며 정치방식입니다.》 사회주의위업은 혁명적당의 정치적행동으로 이룩되는데 수행된다. 당이 혁명과 건설을 행하도록하는데서 어떤 정치방식을 확립하고 실현해나가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 한 문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총대중시의 원리와 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에 기초하여 우리 당의 선군정치와 오늘의 력사적조건에

이룩하여 경여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내지 않은 어조로 항일혁명투사들이 다 영웅이라는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하겠는데 방도가 없지는 않고 물으셨다. 일군들은 그이께 신통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잠시후 경여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화환전진대에 금별메달을 크게 만들어 부각해놓자고. 그러면 항일혁명투사들도 영웅이라는것을 누구나 보고 알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마음속으로 환성을 올렸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일군들은 도식적인 틀에 사로잡혀 여러 나라들에서 하고있는것처럼 화환전진대에 오각별을 형성하고 가스불이 타오르게 하는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놓고있었다. 화환전진대에 이르신 경여하는 장군님께서는 여기에 오각별을 부각한것은 우리 식이 아니라고, 혁명투사들 화환전진대에는 오각별을 부각하는것보다 주체성이 있게 공화국영웅메달을 크게 부각하는것이 좋다고. 그렇게 하는것이 내용도 좋고 의의도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대성산혁명투사들의 화환전진대에 공화국영웅메달이 정중하게 새겨지게 되었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영웅적위훈을 길이 빛내여주시는 경여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떠받들려 오도록 대성산혁명투사들 화환전진대에 새겨진 공화국영웅메달은 투사들의 영생과 더불어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분사기자 김 용 진

어버이수령님을 영현히 높이 받들어오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로 밝혀졌다. -평양시에서- 김 진 명 작

혁명적대고조의 봉화가 타오르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건설에서 천만민족의 정신력이 총폭발되어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최후의 전진의 시대가 펼쳐졌은 선군정치의 거대한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인민군대가 새로운 천리마속도, 《회천속도》로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을 전력적으로 강행돌파하도록 하고 온 나라가 인민군대의 사상정신력을 따라배워 강성대국 《산울림》을 장쾌하게 울려나오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초강대국강령의 자욱자욱은 심장의 격동기 없는 저들을 수 없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길에서 안겨주신 무한대의 정신력으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강성대국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있다. 원효동에 대패수행자가 펼쳐지고 주체철, 주체철수, 주체비료가 쏟아지고있으며 CNC기술에서 패권을 틀어쥐게 된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의 뚜렷한 파시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도시에 일선단체의 정신과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미배에 대한 승고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총폭발시키시고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있는 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 의 대고조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추연으로 맞이할것이다. 김 병 진



어 버 이 수 령 님 을 영 현 히 높 이 받 들 어 오 시 고 위 대 한 장 군 님 의 선 군 혁 명 도 따 라 주 체 혁 명 위 업 을 끝 까지 완 성 해 나 갈 굳 은 결 의 로 밝 혔 으 니 다. - 평 양 시 에서 - 김 진 명 작

숭고한 혁명적의리

항일혁명선열들에 대한 경여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적의리는 대성산혁명투사들 화환전진대에 새겨진 공화국영웅메달에도 뜨겁게 여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성산혁명투사들 개척자로서 한 창이던 어느날 경여하는 장군님께서 공사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투사들의 반신상구역을 돌아보시던 경여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투사의 반신상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일군들에게 동무들이 해방후에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투사들가운데서 영웅칭호를 수여받은 투사들의 반신상에만 영웅메달을 단것으로 형성하였는데 사실 그들만 영웅이라고 불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일군들에게 항일혁명투사들은 모두가 간고한 시련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조선혁명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청춘도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싸웠다고 하시면서 항일혁명투사들에 영웅칭호를 수여하는 제도가 있었다리던 그들은 다 영웅칭호를 수여받았을것이다. 혁명투사들의 투사들은 다 영웅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 버 이 수 령 님 의 품 속 으 서 혁 명 투 사 로 자 라 난 항 일 혁 명 투 사 들 의 값 는 삶 을 더 욱 빛 내 여 주 시 는 경 여 하 는 장 군 님 의 말 씀 은 일 군 들 의 심 금 을 세 차 게 울 러 주 었 다.







